



정교회주보

제2417호

2023.4.23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그리스 칼람바카에 자리한 메테오라는 마치 솟아난 듯한 거대한 바위기둥 위에 지어진 수도원 지역이다. 현재는 6곳의 수도원이 남아 있으며, 1988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사진은 1488년에 도메티오스 수도자가 건립한 성삼위 수도원으로서 이 일대 수도원 중에서 가장 험난하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것으로 유명하다.

부활 후 제2주일

(토마 주일)

성 게오르기오스 대순교자

(조과 복음 1)

- '찬양되시는 주여...' 생략
- '대영광송' 다음에 '토마주일 찬양송'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38
- 토마주일 찬양송 .. " " 74
- 부활 시기송 " " 39
- 사도경 : 사도행전 12,1~11 62
- 복음경 : 요한 20,19~3197
- 성모송 부활절 의식서 26
- 영성체성혈송 " "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토마가 주님을 고백하다

주여, 당신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아걸고 함께 모여 있을 때, 당신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시어 평화를 주셨나이다. 토마는 당신 손과 옆구리를 보고 확신에 차서 당신을 주님이요 하느님으로 고백하였나이다. 사람들의 친구여, 당신에게서 희망을 찾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

문이 굳게 닫혀있었지만, 예수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시어,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시고 평화를 주셨도다. 그리고 토마를 불러 말씀하셨도다.

“내가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한 것을 너는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거라. 내 손과 발을 보거라. 너의 믿음 없음 덕분에 모든 사람이 나의 수난과 죽은 자 중의 부활을 알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 외칠 것이로다. 나의 주, 나의 하느님이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

'오순절 전례서'에서



한국 대주교 2023년 부활절 메시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한 성가 작사가는, 우리 각자가 다음과 같이 찬양하며, 십자가의 고통 뒤에 오는 영광스러운 기쁜 부활 사건에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수난을 찬양하고 찬미하나이다. 당신의 무덤과 당신의 부활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구세주께 드리는 신자들의 감사는 “주님이시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라는 구절로 요약되어 표현됩니다.

자애로우신 당신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으니, “주님이시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당신 목숨을 바

치리”(마르코 10,45) 오셨으니, “주님이시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필립비 2,8) 하셨으니, “주님이시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

“우리가 앓을 병을 앓아 주셨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의 병을 고쳐”(이사야 53,4-5) 주셨으니, “주님이시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

당신의 부활로 “죽음으로 죽음을 물리치셨고”, 우리에게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베푸셨으니, “주님이시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 두



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니, “주님이시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무덤에는 이제 죽은 이들이 없나이다.”(성요한 크리스토포모스)

우리에게 단지 잃어버린 낙원을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하늘 왕국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주님이시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

우리가 당신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에 합당케 해주셨으니, “주님이시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

올해는 당신의 전능하신 은총으로 전염병의 두려움 없이 당신의 부활을 경축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주님이시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

“당신의 전능하신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께

감사드리고, 당신을 경배함이 마땅하고 당연하나이다.”

주여,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합당치 못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보이게 안 보이게, 말과 행실로 베풀어주시는 당신의 모든 은혜에 대해”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여, 당신의 십자가에 경배하며, 당신의 거룩한 부활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안에서의 모든 성직자들과 협력자들을 대표하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에 “주님이시여, 당신께 영광 돌리나이다.”를 새기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스럽고 빛나는 부활을 영적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한없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의 대주교이자 일본의 엑사르호스

부활에 관한 교부 금언

- 구세주의 돌아가심이 우리를 해방하셨으니,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니 악이 쓰러지고 마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니 천사들이 기뻐 용약하는도다.
-성 요한 크리소스툼
-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각자에게 하나의 출발이다. 그런데 이 출발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출발이다.
-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한 가운데 계셨다. 그분께서 부디 우리 삶의 한가운데 계시기를...
- 범접할 수 없는 부활의 빛을 보는 방법은 오관을 맑게 하는 것이다.

소식

■ 부활절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 대 주간 예배와 부활절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축일인 부활절을 위해 달걀, 에피타피온 꽃 장식, 음식 준비, 성당 청소 등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용미리 부활 성당 예배

축일을 맞은 용미리 구세주 부활 성당에서는 오늘 안토니오 스 임종훈 신부의 집전으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교회 묘지에 잠든 모든 고인들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 인천 성당 세례 성사

지난 성 대 토요일(15일), 4명의 예비신자가 세례성사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세례자 : 스텔라 일리, 빅토르 톰, 타티안나 톰,
가브리엘 미하엘 로비치

■ 부산 성당 봄 야유회

다음 주일(30일), 성찬예배 후 낙동강 생태공원으로 봄 야유회를 갑니다. 게임과 산책을 하며 친목을 갖는 시간이 되겠으니, 각자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성인의 가르침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고백자 막시모스 성인은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영혼의 선한 마음이다. 누구든지 그 사랑을 갖게 되면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하느님을 좋아하게 된다.

하지만 세상적인 것에 조금이라도 집착하게 되면, 인간은 영원히 그 사랑을 성취할 수 없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상에서 천사의 삶을 산다.

그는 금식하고, 밤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언제나 모든 사람을 좋게 생각한다.”